

교회 소식

- “열린 문으로(계 3:7-8)” 우리 마음과 눈의 문이, 삶의 길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한 해를 기원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린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밤 9시 합심기도 기억해주시시오. 금요일 밤 8:00 – 9:30 기도 다락방 열려 있습니다. 8:00부터 찬양하고, 8:30부터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부흥과 복음 전파와 나라를 위해 (주보 기도제목).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시오.
- 11월24일 추수감사주일은 오전 10:30 미국교회와 연합으로(Unity Service) 드립니다. 예배/교육/친교부장님과 담당자들은 준비를 위해 오늘 예배 직후 로비에서 잠깐 모이겠습니다.
- 오는 토요일(11/16) 성극 관람 다녀옵니다.
- 매일성경 받아가십시오.
- 오늘 친교를 준비해주신 최성국, 김민아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

- 대표기도: 이승택 집사 (시 16)
- 친교: 최병식, 노미라 집사
- 11월 안내: 김은영 집사

예배 안내

- 주일예배:** 2:00pm, YouTube
English Service: 2:00pm, Zoom
토요새벽기도: 6am, 아몽크 본당
유치부 · 유년부 주일학교: 2:00pm
중 · 고등부(Youth Group)예배: 2:00pm, Zoom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939 020 5125/Passcode: Sk (EM/Y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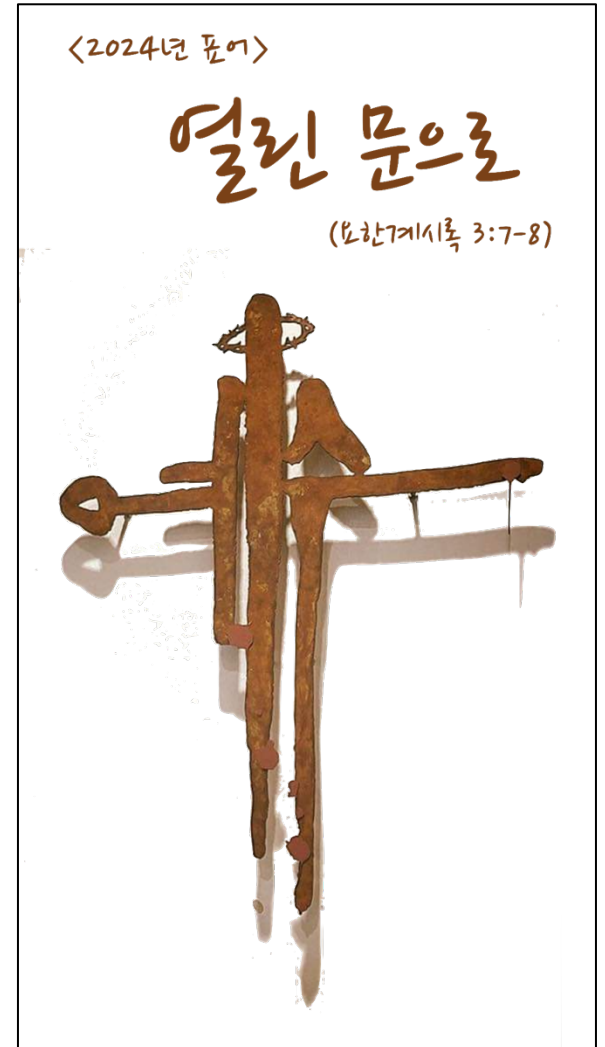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장효종 / **반주자:** 이현주

기도

예수님께 활짝 열어 모셔드린 교회가 되어, 예수님을 향해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 하나님 은총의 징표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빛과 은혜를 받아 등불과 소금이 되도록
- 불의와 탐욕,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의와
- 화평이 나라들을 다스리시도록
- 캄보디아 Paul Lee, 터키 Joshua Kavak, I 국 장이삭, 혼두라스 최문재, 베트남 김승훈, 모잠비크 정명섭 선교사. WEC 코리아 이정석, 우크라이나 권영봉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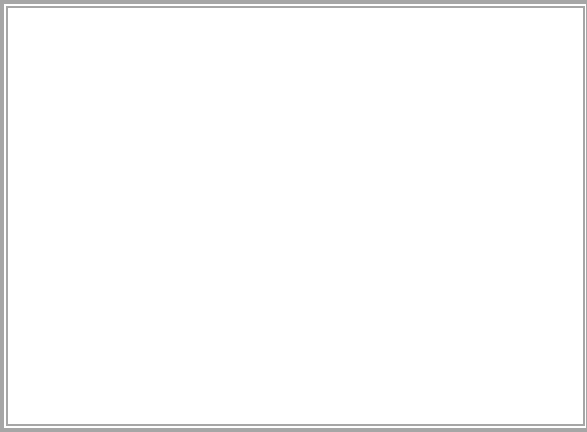


주소: 448 Bedford Road, Armonk, NY 10504
전화번호: (914) 874-3606
Email: nyskch@gmail.com
Homepage: www.nysekwang.org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Order of English Service

<2:00pm> President: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Offering ----- Together
Prayer----- Pastor Edwin
Word of God----- **Numbers 8:1-4** -----Pastor Edwin
Sermon ----- **“Doing as the LORD Says”** -- Pastor Edwin
Reflection Prayer----- Together
Lord’s Prayer ----- Together



Memo

주일 예배 순서

<오후 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위한 기도 ----- 인도자
Worship Meditation
*예배로의 초대 ----- “거룩 거룩 거룩” ----- 다함께
Call to Worship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22(26) “만유의 주 앞에” ----- 다함께
Hymn 35(60) “큰 영화로신 주”
기도 ----- 시편 125 ----- 윤정호 집사
Prayer
찬양대----- 소리 높여 주 찬양 ----- 세광찬양대
Choir
*봉헌-----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Offering
*성경봉독 -- **딤후 5:1-3, 5; 잠언 16:31; 20:29** ----- 인도자
Word of God
설교 -----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 이민영 목사
Sermon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
*찬송 ----- 559(305)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다함께
Hymn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딤후 5:1-3, 5; 잠언 16:31; 20:29)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할지 권하는 편지이기에, 여러 연령과 성별의 성도들이 어떻게 소중하며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늙는 것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피하거나 늦추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늙음으로 얻는 영광과 역할과

소중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그의 길에 오래 머문 사람만이 얻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의 영광은 힘입니다. 미숙하여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세상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세상을 개척해갈 수 있습니다. 이같이 늙은 이와 젊은 이와 각자 소중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으로 인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집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족이 소중합니다. 가족 같이 친하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헌신과 사랑이 없다면 늙은이는 소위 “큰대”가, 젊은이는 배은망덕한 세대가, 이우만도 못한 형제가 되기 쉽습니다. “정결함”의 요체는 자기 생각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형제를 향한 사랑입니다. 백발의 영광은 “공의의 길”에서 얻습니다. 젊은이의 가능성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실현됩니다.
그러나 책임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서로 자격을 넘어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외로운” 과부는 세상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고 기껏해야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존중”이란 그 가치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여 사람의 지혜와 힘과 아름다움과 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선하시기에 교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땅한 아버지와 형제가 됩시다. 자격을 넘어 서로를 소중히 여길 때, 그 어머니와 자매를 통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렇게 다 이룬 가정은 드물지만, 하나님의 권속인 교회를 포함해 모든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